

한국에서는 초봄에 신정 (음력 1월 1日)과 가을에 추석 (음력 8월 15日)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신정은 일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음력을 기준으로 1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1년을 시작하는 일본보다 약 1년이 늦습니다. 그때(명절)에는 3일간 쉬는 날이다. 때문에 다른 지방의 살고 있는 친척을 만나고, 조상의 묘에 참배(성묘)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떡으로 만든 떡국을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1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한국의 민속 놀이를 한다. 요즘들어 민속놀이를 예전 보다 하지않지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집에 방문하여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어른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한국의 이런 전통은 일본과 비슷합니다. 한국의 신정은 새로운 1년을 기쁘게 받고, 전년의 일을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한국은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 사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어른은 무조건 존경하는 사상이 강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명절의 정신은 그 정신(무조건존경)의 아래에 일을 한다. 신정이 새로운 1년을 잘 보낸다면 추석은 1년간의 곡물과 과일등 감사하게 생각하는 명절이다.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 1년간의 사건과 사고가 없던 있던간에 조상에게 제를 한다.

아무튼, 한국인들은 명절이 늘 즐거워 한다.